※특별연재①※

마 음 과 힘

PSYCHODYNAMICS IN DENTISTRY

구의치과의원 원장
金 潤 煥

——目 次——

Ⅰ. 序 論
Ⅱ. 方 法 論
1. 言語分析
2. 禪
3. 陰 陽 說
4. 相 對 論
Ⅲ. 運 動 論
1. "씹어먹다"와 "빨어 마시다"
2. "내 뱉다"
3. 細胞運動과 物質移動
Ⅳ. 生 氣 論
1. "아프다"
2. 神經反應
3. 攻擊과 防禦
4. 性 格
Ⅴ. 結 論

Ⅰ. 序 論

마음과 힘은 物質이 아니므로 눈에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抽象的 意味를 갖는다. 精神力動學(Psychodynamics)에서는 이것을 主題로 삼고 있으나, 患者(subject)의 마음의 상태나 力動的 事件을 客觀化시켜서 관찰하기 때문에 이는 硏究對象이 된다. 漢字로는 心氣라 표현할 수 있으며 이것은 主體와 客體가 융합된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心氣는 主體와 客體로 區分되지 않고 主觀的 의미도 客觀的 의미도 아니다. 그러나 이 連載에서 사용하는 "마음"과 "힘"은 主觀的으로 認識된 狀態를 뜻한다.

1) 힘에 대하여

힘을 客觀化시켜서 생각하면 에너지의 뜻으로 認識될 것이다. 에너지에는 位置(Potentcal) 에너지, 熱(heat)에너지, 輻射(radiant)에너지, 運動에너지 化學的 에너지, 電氣的 에너지, 代謝에너지등이 있으며 이 에너지가 사람 몸에서 생겨났을 때 生命力, 리비도, 精神力, 心氣, 生氣, 熱氣, 火氣, 氣力, 血氣, 氣運, 陽氣, 陰氣, 精力, 覇氣등과 같이 표현되기도 한다. 위에 모든 낱말에 공통적으로 함축된 뜻을 主觀的으로 直感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우리말을 써서 힘이라고 했다.

벌레에 물리는 것, 뱀에게 물리는 것, 高等動物들이 먹이를 잡아먹는 힘, 물고기의 빨아 먹는 힘, 쥐가 나무를 갈가내는 힘, 개미가 먹이를 운반하는 힘 등은 各 個體의 다른 어떤 器官(organ)의 힘보다 强하다. 사람에 있어서도 口腔領域에서 생겨난 힘은 比較的 强한 힘이며 臨床에서 이러한 힘에 대하여 자주 관찰할 기회를 갖는다. 또한 齒科臨床에서 患者에게 많은 자극을 주고 이에 대한 反應을 관찰할 수 있다. 이때에 주어진 자극은 결국 힘을 뜻한다. 사람몸에서 생겨난 힘이나 자극으로 주어진 힘을 客觀的으로 관측하려면 움직인 물체의 空間과 時間의 變化를 物理量으로 側定하게 되고 이 側定値를 기초로 에너지 값을 算定한다. 그러나 때로는 計器를 써서 直接 에너지값을 얻을 때도 있다. 生命體가 움직

인다는 사실은 生命體內에 어떤 特有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는 것이다. 生命體와 無生物體는 다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固有한 힘의 性質은 다르다 움직인다는 사실은 힘이 作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힘이 먼저 作用하고 結果的으로 움직였다는 事件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物理量으로서의 에너지값은 움직인 空間거리와 움직인데 걸린 時間値를 갖고 計算한 것이기 때문에 逆算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움직이기 前에 힘의 量을 에너지값으로 側定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움직이기 前에 作用해야 할 힘을 主觀的으로 認識한다. 물론 이때의 힘은 대부분 自律的(無意識的)作用이기 때문에 힘의 量을 보통 意識하지 못하지만 이를 意識化시키면 認知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主觀的으로 認識된 힘의 量과 客觀的으로 관측된 에너지값과의 差異를 一致시키기 위해서는 現代理論物理學的 接近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인용한 것은 現代物理學的 槪念의 一部이다.

「물리현상의 전체는, 하등 절대적 운동의 개념을 도입할 근거를 주지 않는 그런 성질의 것이다. 即 절대적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물리학의 기본개념을 이끌어 낼 만한 귀납적 방법같은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연역적이며 가설적 개념 및 공리에 입각하여 있다」[1] Einstain.

「物理學에 있어서는 實驗의 解釋을 模型이나 理論이라고 부르며 모든 모형이나 이론들이 近似値란 사실을 깨닫는 것이 현대 科學硏究의 根底를 이룬다. 뉴톤의 모형은 다만 現象의 特定한 群, 특히 固體의 運動에만 적용될 수 있는 불완전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現代物理學의 諸發見은 空間, 時間, 物質, 對象, 因果등과 같은 개념들에 큰 변화를 가져 왔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들의 世界의 경험방식에 매우 기본적인 것이므로 그 개념들을 변화시킬 수 밖에 없었던 物理學者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自然 본래의 調和를 굳게 믿었고 그의 科學的 생애를 일관하고 있는 가장 깊은 관심은 物理學의 統一된 바탕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時間과 空間을 포함하는 모든 측정은 그 절대적 의미를 상실한다. 空間과 時間의 개념은 自然現象을 記述하는데 매우 기본적인 것이므로 그것들의 修正은 우리가 자연을 기술하는데 이용하는 全體系의 수정을 초래한다. 空間과 時間을 포함하는 모든 측정은 相對的일 뿐만 아니라 時間의 全구조가 우주안에서의 物質의 分布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빈 空間의 개념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

Max Planck는 熱輻射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다발들'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人間이라는 관찰자는 관찰되는 과정들의 連鎖에서 마지막 연결을 이루며 어떤 原子的 對象物의 성질들도 단지 관찰자와 대상과의 相互作用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自然의 객관적인 記述이라는 古典的 理想은 이미 빛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物理學者들은 물질을 그 기본적 구성체로서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고전적인 思惟傾向은 오늘날까지도 실로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다.

현대물리학에서 宇宙는 본질적으로 항상 관찰자를 포함하는 力動的이며 불가분의 全體로서 체험된다」[2] Capra.

이와같은 現代物理學的 개념들은 東洋哲學에 접근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나의 임상경험에서 物理的 現象을 古典力學的 개념으로 推理하고져 했다. 그러나 우리의 傳統文化는 이와 相衝됨을 종종 느껴왔었다. 이제 이를 정리하여 나의 經驗으로 터득한 主觀的이고 直觀的인 힘에 대한 개념과 그 힘에 의한 生命現象에 대하여 論해 보고져 한다.

2) 마음에 대하여

마음을 定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이란, 抽象的 뜻을 갖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觀念을 갖고 마음을 認識한다. 이 觀念的 差異를 客觀的으로 認識할 수는 없다.

「융은 누차 심리학에는 아르키메데스의 占처럼 어디에 의거해서 판단할 만한 곳이 人間心理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심리란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과 구별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심리란 심리학의 대상인데 불행하게도 동시에 그 主體이기도 하기 때문이다」[3].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對象으로서의 마음을 客觀的으로 定義하는 것을 피하고 主體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함으로써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比較할 수 있는 기회를 갖어 보고져 한다.

齒科臨床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것으로 患者가 아프다는 사실을 호소할 때 어떻게 認識하는가하는 문제이다. 아프다는 사실을 비롯한 모든 자각증상들은 主觀的으로 認識된 것이기 때문에 客觀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동안 臨床에서 主觀的으로 認識된 患者의 호소와 客觀的으로 판단된 나의 見解와의 差異로 인하여 가끔 患者와 말다툼을 벌여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患者가 主觀的으로 認識한 자각증상이 術者가 客觀的으로 판단한 것보다 정확하다. 다만 자각증상을 잘못 표현할 수도 있고, 또 術者가 잘못 理解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患者와의 말다툼에서 術者의 客觀的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無謀한 일이라는 것을 요즘에 와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경험이란 새로운 어떤 것을 同化해 가는 과정이므로 비판적인 고려없는 경험이란 실상 무의미한 것이다」[3].

「코끼리는 그것이 거기 존재하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다. 코끼리는 論理的 推理의 결과도 아니고 하나의 주장도 아니며 그렇다고 創造主의 주관적인 판단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의 現象이다」 Jung.[3]

임상적으로 관찰된 現象 그 자체는 똑 같은 것이다. 그러나 臨床經驗은 비판적 고려가 수반되기 때문에 經驗的 事實의 표현이 달러지는 것이다. 例를들면 生理的 現象은 누구의 몸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現象이지만 各者의 자기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生理的 現象을 體驗한데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生理學 知識이 될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連載에서 마음에 대한 記述은 經驗的 事實의 표현이지 學問은 아니다.

3) 總　括

마음과 힘의 複合的 뜻을 含蓄한 낱말로는 心氣, libido, 攻擊心, 食慾, 性慾, 사랑—등이 있다. 齒科醫學과 관계되는 것으로는 攻擊心, 食慾, 아픔, 性格, 버릇, stress와 strain, 神經反射등이 있다.

齒科臨床에서 患者를 자극하는 것은 기계적 자극뿐만이 아니고 소위 心理的 衝擊을 줄 수도 있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극을 줄 수도 있다. 여기에서 心理的 衝擊이라던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극이란 뜻은 主觀的 意味의 힘을 말한다. 이들은 주로 視覺的으로나 聽覺的인 反應을 일으킬 수 있는 性質의 것이다. 이들을 術者의 觀點에서 본다면 術者의 精神作用을 거쳐서 방출된 힘이기도하고 마음이기도 하다. 또한 患者에게서는 이러한 자극으로 인해서 心理的 現象이 일어난다. 이와같은 治療過程에서 나타나는 現象뿐 아니라 日常生活속에서도 齒科醫學과 관계되는 心理的 現象이 나타난다. 이와같은 心理的 現象속에는 항상 어떤 힘이 作用하고 있다.

「프로이드學說가운데서 융을 포함한 많은 학자들의 批判對象이 된 것은 그의 libido학설이다. 精神的 機能의 力動的인 상호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精神身體的 에너지를 想定하여 libido라는 말을 쓰게 되었는데 批判者들의 주장은 프로이드가 libido를 性的인 본능과 거의 同一視하였기 때문에 性的이 아닌 精神的 에너지조차도 性的인 충동으로 還元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精神現象을 어느 특정한 하나의 충동의 變種인 듯이 설명하게 된 것은 잘 못이라는 점이다. "인간에게는 性이전에 배고픔과 음식을 섭취하고져하는 기능이 있으며 幼兒期에는 오직 그러한 營養攝取의 機能만 있다……"」[3].

「Barkley는 1899년……적절한 營養과 건전한 生活이 정신건강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음식을 씹는 것과 精神障碍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로마시대의 精神醫學思想과 다를 바가 없다」[4].

영향력이 컸던 프로이드가 性慾을 너무 강조하였기 때문에 齒科醫學에서 마음에 관하여 관심을 덜 갖게 된 것 같다. 요즘 學問의 추세는 綜合化되어가고 있는데 綜合科學으로 神經科學(neuroscience)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外國의 一部 齒科大學의 교과과목에 神經科學이 들어 있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 齒科 醫學에서도 神經科學에 관심을 갖고 있고 硏究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連載에서는 이런 神經科學의 관점과는 다를 것이다. 여기서는 生氣論的 觀點에서 記述하게 될 것이다.

4) 連載內容의 槪要

西洋科學은 部分的 事物에 대한 客觀的 관찰 分析과 歸納的 推理로써 唯物論的이고 기계론적 思想에 의한 것이었다면 東洋哲學은 이와 대조적으로 全體的인 有機體로써 主觀的 認識과 演繹的 推理로써 生氣論的 思想을 갖고 있다.

이 두 思想사이에서 우리나라의 科學徒나 齒醫學徒들은 갈등과 고심속에서 지내왔다. 그에 反하여 西洋에서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假說—演繹主義(hypothetico-deductivism)가 도입되었으며, 이로부터 現代物理學이 主觀主義로 접근해 옴에 따라 東洋思想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量子物理學의 巨匠인 보아나 하이젠베르그는 思想的 苦悶속에서 東洋思想에 關心을 가졌었다.[2] 分析心理學者인 융, 新프로이드學派의 프롬, 原子核物理學者인 카프라 醫史學者이고 黃帝內經의 譯者인 일자 베이스등은 東洋思想에 대한 많은 硏究업적이 있다.

齒醫學은 西歐的 學問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點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번에 連載를 통하여 東洋的 思惟方法에 의한 經驗的 事實을 소개하고져 한다. 그리고 대체로 主觀的 演繹的 推理에 의한 것이다.

二部方法論에서는 東洋的 方法論을 소개하고 三部에서는 主觀的 認識에 의한 힘의 觀點에서 人體內의 運動에 대하여 論하고 四部生氣論에서는 神經機能과 心理的 現象에 대한 것을 경험적 사실을 통하여 記錄할 것이다. 結論部에서는 全一的 有機體로써의 관계를 究明해 보고져 하지만 대단히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직 體系를 세우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部分은 앞으로 글을 써 가면서 정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五部를 結論이라고 했는데 부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다.

이 連載內容은 客觀性이나 입증성이 없기때문에 學術的 價値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다만 經驗的 事實을 기록하여 後輩들에게 試行錯誤가 없도록 하기를 바라고 한거름 더 나아가서 이 資材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쓰기로 한 것이다.

參 考 文 獻

1) Albert Einstein; 晩年의 回想(Out of my later years) 科學, 尙書閣 1977.
2) Fritjof Capra : 現代物理學과 東洋思想(The Tao of Physics) 汎洋社. 1979
3) 李符永 : 分析心理學 : 一潮閣. 1978
4) 李鉉洙 : 異常行動의 心理學 : 大旺社. 1976
5) 金明國 : 齒科領域에 있어서 腦연구의 最近動向 : 齒科硏究. 6권 2호 24. 1979.
6) 金俊燮 : 科學哲學序說. 正音社. 1977.

아-三齒科技工所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 73의 2
(73) 3452 (72) 4237
대표 文 一